

네가 미국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행전 27:9-26)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6:25-26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바 되었다고 하였다. 영세전부터 계시했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3:11절에는 영원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이 영원전부터 계시했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13:8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예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3:15절이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인 사단을 죽이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니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사야 7장 14절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하였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말이 안된다. 그래서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8-25절에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다. 예사로 듣는 말이라서 그냥 넘어갈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사로 넘어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셨다. 하나님 떠난 죄문제, 사단 문제, 떠난 문제를 저주에서 건질 길을 마련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잡는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대부분의 믿는 자가 이 믿음이 잘 없다. 그러나 사실이다. 오히려 저주를 정복하고 저주에 잡혀 있는 사람을 살린다. 뱀의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영적 문제, 모든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하나로 반드시 해결된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을 누리고 깊이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이 있다. 이것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세이다.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 전체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 답이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죽으심과 피흘리심의 희생제사 안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육신적으로도 받는다. 기도하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면 이것을 믿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답을 누리면 사단이 무너진다. 놀라운 일이다. 이 답을 누리면 사단이 무너진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응답이 계속 된다. 성경은 말한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고, 이것이면 모든 문 다 열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인생은 간단하다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미국 앞에 서야 한다. 미국은 이것을 잘 모르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1. 네가 미국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 생긴 일이다. 너무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광풍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본문 19절에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다 버려야 할 정도가 되었다. 너무 급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24절이다. 바울이 두려워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네게 주겠다고 하였다. 이때 나온 말씀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네가 미국앞에 서야 할 것이다.

미국 중요한거 모르는 사람 없다.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르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이다. 영적으로 나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 미국만큼 파급효과가 큰 나라가 없다. 그래서 미국 교회 자꾸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미국 교회, 미국의 영적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각자의 시각으로 말할수 있지만 근본은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올때마다 이유가 있었는데, 복음을 버리고 우상숭배해서 그렇다.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왜 미국이 옛날보다 힘이 없어지는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완전히 그런건 아닌데, 자꾸만 더 심해져간다. 미국 교회가 만일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으면 미국의 귀신 문화 자리 못 잡는다. 복음은 전세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 받을 사람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미국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필요 없다. 미국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만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할 일 끝난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실 자를 교회에 보낸다. 노아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왔다. 그 짐승 어떤 것을 보낼까 결정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새도 들어왔다. 노아가 새를 잡겠는가? 그런데 새는 종류마다 7쌍이 들어왔다. 짐승중에서도 번제로 드릴수 있는 경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만 들어왔다. 노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노아는 방주 만들고 문 열고 기다렸다. 하나님이 뽑아서 넣으셨다. 짐승도 이렇다.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은 살았다.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짐승들은 누가 선택했는가? 노아가 했는가?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 없으면 세상 완전 죽어버린다. 교회를 비판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없으면 완전 처절하게 죽어버린다. 모르는 것이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여기 와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바로 말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먼저 자기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옆에 사람에게 이것이면 된다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이것만 잘해주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잘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미국 교회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미국 교회가 힘들어도 아직도 분명히 이 복음을 기다리는 제자가 많이 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증인되게 만들어줘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다. 우리가 그렇다. 오늘 찬양에도 그랬다. 우리가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가 미국의 희망이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의 희망이다. 우리는 진짜 복음이고 시대적인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진짜 희망이고 시대적인 희망이다. 우리가. 발견하면 흑암세력 무너진다. 응답 나타난다. 틀림 없다. 하나님의 소원에 가슴이 통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대대교회이고 미국의 안디옥교회이다. 당연히 남미에도 가야 한다. 진짜 언약되고 눈 뜨는 시간 되기 바란다. 인생 역사 일어난다.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고 그 때 되어지는게 최고로 좋다. 눈 열리면 흑암세력 무너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소원이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증거가 무엇인가? 응답이다. 때로는 기적이다. 많은 증거를 주시다가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 정도로 소원이다. 문제는 눈 안열린 것이다. 기도해야 한다. 눈 열어달라고. 이것이 24시간 기도제목이다. 이 소원이 통하면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당연히 뱀의 머리 박살

난다. 이것이 망대이다.

증인이 되지 않고는 땅끝까지 갈수 없기에 증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남미의 전세계의 망대와 같은 증인이 되어 지는 것이다. 이 망대같은 증인, 큰 인생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작은 전도를 베푸는 것 아니다. 아주 귀한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전도로 끝나면 안되고 큰 전도를 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근본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것이 되면 큰 인생 살수 있다. 누구든지. 응답받으면 된다. 렘넬트 7명 전부 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 공부 잘 한 사람 아니었다. 저 농촌에 있던 엘리사, 그런데 답이 나버렸다. 기적이 일어나버렸다. 어찌했는가? 이런 큰 증인이 되는데에는 미국이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마음에는 로마가 있었을 것이다. 그냥 있었겠는가? 로마는 사도바울의 언약이었을 것이다.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세계복음화, 소원 언약이 들어있는 나라였다. 사도바울 주위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저기 활동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그들보다 큰 기도 했다. 그 결과가 인생이다. 큰 인생, 큰 전도.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할 언약이다. 우리에게 미국과 남미는 또 하나의 언약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과 남미는 우리의 또 하나의 언약이다. 단지 기도제목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언약을 가슴에 잡아야 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반드시 크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시대적인 인생이 될 것이다.

2. 역전

복음은 인생 역전이다. 복음을 언약으로 잡으면 지금 문제들 역전되고 축복되고 기적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증거 없으면 말 못한다. 반드시 역전되고 안되는 것은 없다. 절대로 사단은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언약을 완성하셨다.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복음을 하기 바란다. 다른거 하지 말고 복음을 하라. 우리 머리 속에 복음이 늘 들어있다는 것이 24시 이다.

처음 출발할때에는 이 배를 관할한 사람이 선장과 선주였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다. 처음 출발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끼칠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고 있는게 낫다고 하였다. 11절에 보니 선장과 선주에게 물었는데, 그들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왔는데, 배가 안 뒤집어진 것이 다행이었다. 그래서 20절에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백부장, 선장, 선주가 바울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상황이 종결되었다. 놀랍다. 예수님이 치유할 때, 항상 말씀 나가면 그것이 역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바울이 받아서 거기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때 상황 종결. 바람 멈춰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이다. 말씀 받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 받고 언약으로 잡으면 그대로 살게끔 만들어주신다. 말씀 무시하면 지망대로 산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또 말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야기 했다. 26절,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나중에 읽어보면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이 멜리데이다.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온 섬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 나중에 읽어보면 3개월 후에 다른 배를 만나 떠나갔다. 사도바울이 3개월동안 뒤흔겼는가? 하나님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백부장도 포함되어 있다. 백부장도 완전 무릎 꿇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들, 시대적인 복음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이다. 기적이 일어나고 온 섬이 복음화 되었다. 이 사건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가지는 모든 상황이 뒤집어 졌다. 특별히 사도바울과 선장, 선주, 백부장의 위치가 아주 역전되었다. 처음에는 백부장과 선장, 선주가 이 일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 백부장은 아주 중요한 권세를 가진 군인이다. 그러나 이 상황이 끝난 후에는 백부장이 사도바울에게 아무 할 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죄수 바울이 호송하는 백부장의 상관인 것이다.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 그리고 항상 그렇다. 이 언약이 멈추는 일은 절대 없다. 조건 한 개 딱 있다. 복음이나? 니가? 니가 정말 그리스도나? 그것으로 끝이다. 죽을 자들이 생명을 얻었다. 역전이다. 죽으면 끝인데. 광풍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멈춰버렸다. 그리고 바울이 주인이 되어버렸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원인은 사단이다. 가만히 문제마다 보면 전부다 영적 문제였다. 그러면 복음 외에는 답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뻘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 된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으로 살수 있게 한다. 힘을 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으로 살수 있도록 힘도 주고 상황도 바꿔주신다. 어떻게 복음을 누리는가? 복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릴수 있게 만들어준다. 점점더 깊게 누리게 해주신다. 인간이 무슨일을 스스로 할수 있겠는가? 특별히 영적인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인간이 할수 있나? 없다. 그래서 다른거 필요 없고 고백을 시작하면 된다. 하시는 분은 지속하면 된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계속하신다. 역전이 계속 일어나다 때로는 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된다. 원인이 사단이기때. 이 눈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이 영적 눈이 없으면 믿는데 지금은 못 만난다. 눈이 통해야 만난다. 죽으면 영원히 만난다. 그러나 그건 죽고난 이후의 일이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우리가 죽음 이후는 생각할 필요 없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항상 그 모든 상황에 중심에 있게 하신다. 잊지 말라. 바울은 배 전문가가 아니다. 기상전문가도 아니다. 그런데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울 중심으로 결정하셨다. 말씀 전했는데, 상황 바뀌버렸다. 그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다.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다. 비밀이다. 왜 노아에게만 주고 바울에게만 주나? 조건이 복음이다. 왜 복음이 조건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어야 전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서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사단은. 요셉은 노예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굽의 왕이었다. 요셉은 중심이었다. 왜 그런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포로되었다. 그러나 왕이 꿈쩍 못하면 왕이었다. 엘리사에게 그때 왕이 와서 아버지여라고 말하였다. 시대의 중심에 서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미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조건은 단하나, 니가 복음인가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은 항상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사람을 중심에 세우신다. 우리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 미국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 전하게 하신다. 죽어가는 미국 교회를 살릴려고. 미국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은 변하지 않는다. 영어를 할수 있는 제자들은 잊지 말아라. 렘넬트 7명 항상, 시대적인 중심이고 문제 해결자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모든 상황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언약으로 잡으면 우리 인생에도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시 한번 눈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